

생명의 삶
월요일
20.03.09.

정치적 왕국이 아닌 진리 왕국의 왕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2.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8:28~40

3. 본문 해설 & 적용하기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18:28-32)

예수님의 죽음은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기소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이 기소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요한은 이것이 말씀의 성취라고 기록합니다(32절). 여기서 말씀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미리 주신 '예수님 말씀'입니다(12:32~33). 요한은 놀랍게도 구약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 말씀'의 성취를 기록합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10:30) 예수님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동일한 권위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힘이나 유대인들의 간계로 죽임당하셨을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정치적 희생인가요 말씀의 성취인가요?

내가 주님의 섭리로, 말씀의 성취로 받아들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 (18:33~40)

예수님은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빌라도의 질문을 볼 때 유대인들이 제기한 죄목은 '유대인의 왕'을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 지도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러한 왕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왕국)'는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진리의 왕국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만 그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 왕국의 왕을 꿈꾸는 사람이 아님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참된 진리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피할 방법이 아니다. 상황을 통해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 오스왈드 챔버스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 악에게 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진리에 무관심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 무뎠진 제 심령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소서. 날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듯 진리의 음성을 세밀히 듣고 순종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실히 살게 하소서.

5. 주 기도

생명의 삶
화요일
20.03.10.

조롱 속에 역설적으로 드러난 메시아 왕의 정체성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2.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9:1~16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조롱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성 (19:1~5)

하나님은 세상 왕국의 종을 사용해 그분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빌라도는 세상 왕국인 로마 황제의 신하입니다. 겉보기에 그는 로마 황제의 신하로서 예수님을 심문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왕국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쓰입니다. 그의 부하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의도로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지만, 이로써 그분이 진정 왕이심을 보여 줍니다. 빌라도는 자색 옷을 입힌 예수님을 무리 앞에 세우고 “보라 이 사람이라고”(5절)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라는 뉘앙스로 유대인들을 설득하려 한 말이지만, 저자 요한의 입장에서는 심층적으로 “참사람을 보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시요 참사람이심을 만물이 고백하고 선포할 진리입니다.

- 빌라도와 군인들의 말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나요?
- 예수님이 참사람이심이 내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줌 (19:6~16)

생존을 위해 진리를 저버리는 선택은 어리석습니다.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석방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빌라도의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협하려 했던 그는 오히려 더 겁에 질리고 맙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고민하던 빌라도에게 가해진 결정적 한 방은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친구)’이 아니라 반역자라는 말이었습니니다. 빌라도는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빌라도는 신념을 따르지 못한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가이사만이 왕이라 하며 메시아 왕을 버립니다. 빌라도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탄 왕국의 신민이었습니다.

-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 결정적 말은 무엇이었나요?
-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진리를 저버리는 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죽음 이외에는 무엇도 남을 것이 없다.

- D. A. 카슨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욕심내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입장이나 생각과 다르다고 남들을 말로, 행동으로 무자비하게 대했던 완악함을 용서하소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묵묵히 가신 고난의 길에 저도 서게 하소서.

5. 주 기도

생명의 삶
수요일
20.03.11.

십자가 명패의 의미, 메시아 왕위 즉위식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2.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9:17~27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십자가 명패 (19:17~22)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의 정치 공세에 밀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메시아 왕위 즉위식'으로 그림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입니다. 이는 죄 패가 아니라 일종의 즉위식 현판입니다. 그것도 3개 국어로 기록해 이 즉위식이 국제적 행사임을 보여 줍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즉위식의 준비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형수의 패를 죄 패로 쓰지 않고 즉위식 현판으로 쓴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반발하자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세상 왕국의 종을 사용하셔서 메시아 왕위 등극식을 행하십니다.

-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서 '자칭'이라는 말을 빼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나요?
- 메시아 즉위식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십자가와 교회 (19:23~27)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곧 메시아 즉위식이었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은 전리품으로 죄수의 속옷을 취하는 일에만 몰두했을 뿐 이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지몽매한 이들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시22:18). 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까지 따라와 그분 곁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애제자(요한)와 여인들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여기까지 따라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애제자와 모친에게 서로를 새로운 가족으로 선언하시고, 그들은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 애제자와 예수님의 모친이 십자가까지 따라간 이유는 무엇이이었을까요?
-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십자가는 저주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승리를 발견할 수 있다.

- 브루스 밀른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대신 고난과 수치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옷 한 조각 구하느라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드높이게 하소서.

5. 주 기도

생명의 삶
목요일
20.03.12

사명의 성취, 성경의 성취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2.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9:28~37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예수님의 죽음 (19:28~30)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은 역사적 실재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경감하는 진정제를 탄 포도주가 아니라 생명을 연장해 고통을 더하는 신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죽음을 제외하고 자신을 통한 하나님 뜻이 완수되었기에 “다 이루었다.”(신적 수동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예수님이 하신 세세한 행동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십자가 죽음을 주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형적으로는 로마 군인에게 죽임당하신 것이지만, 심층적으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뜻을 완수하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따라 자신의 영혼을 주도적으로 내어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뜻을 완수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면, 내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 예언의 성취 (19:31~37)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 그분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두 사람은 로마 군인에게 강제로 다리를 꺾여 죽임당했지만,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셨고 자기 영혼을 이미 하나님께 내어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군인의 창에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가 섞여 나와 죽음이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이 일도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성취된 것입니다(출 12:46; 시 34:20).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일어납니다. 우리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과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 십자가에서 예수님 영혼이 떠나신 후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은 무엇인가요?
- 성경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되도록 온전히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 이상의 것이며, 능동적인 순종을 포함한다.

- 레슬리 뉴비긴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참혹한 십자가로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 앞에서 제 존재 목적을 확인하고 저를 바로 세웁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을 선명히 이루는 삶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5. 주 기도

생명의 삶
금요일
20.03.13

왕의 장례로 엄수된 예수님 장례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2.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9:38~42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19:38~39)

참제자의 증거는 위험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처음엔 부족했지만 훗날 온전한 제자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부족한 제자의 모습입니다(12:42~43).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행위가 유대인들의 공분을 살 수 있었음에도 빌라도에게 그 주검을 달라고 요청해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장례하는 데 요셉과 힘을 합쳐 제자가 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제자지만 점점 변화되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요셉과 니고데모가 온전한 제자로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내가 부족한 제자임을 느낄 때는 언제며, 그럴 때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예수님을 장사 지냄(19:40-42)

십자가로 인류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장례는 특별하게 치러집니다. 로마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것이기에 가족도 시체를 찾으러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메시아 왕의 즉위식으로 묘사되었듯, 장례식도 왕의 장례식으로 묘사됩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의 양은 일반인의 장례식에서 쓰는 양을 훨씬 넘어서는 왕의 장례식 수준이고(39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도 일반인의 장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41절). 이러한 장례는 메시아 왕으로 등극해서 온 인류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께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 향품의 양과 새 무덤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장례는 어떠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 대속적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께 나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생명을 바치는 그곳에 영적 도약이 있다.

- 브루스 월킨슨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해야만 진정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헌신할 수 있음을 봅니다. 마음에만 머물러 있던 주님을 향한 제 사랑에 십자가 은혜를 쏟아부어 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왕이신 주님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제자로 드러나게 하소서.

5. 주 기도

생명의 삶
토요일
20.03.14

예수님을 사랑한 빈 무덤의 증인들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 계셔

2.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0:1~10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 (20:1~2)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따르면 믿게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의 첫 번째 발견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고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빈 무덤을 보자 누가 시체를 훔쳐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언자로서 영예를 얻는 것은 온당합니다. 비록 부활을 믿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안식후 첫날 일찍이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행동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됩니다 (20:14~17). 비록 주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면 결국 그분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 주님의 무덤에 간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 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빈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 (20:3-10)

무덤의 증인과 부활의 증인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 베드로와 애제자(요한)도 빈 무덤을 직접 보았지만 부활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누가 시체를 훔쳐 갔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체를 싣던 천과 수건이 남아 있으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빈 무덤의 증인이기는 했지만 아직 부활의 증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그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따라갔기에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증인이 됩니다. 부활은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목도한 증인들의 증언을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믿게 됩니다.

- 예수님 시체를 싣던 세마포와 수건을 본 두 제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 이성적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성도에게 무덤은 더 밝은 세상으로 난 생명의 문이다.

- J. W. 코워드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의 돌을 옮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절망적인 현실로 인해 눈이 가려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소서. 다시 사신 주님을 향해 사랑으로 달음질해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하소서.

5. 주 기도